

괭생이모자반 습격... 벌써 최대 규모

이달 14일 첫 발생 이후 10일 새 5193t 유입 추정
 제주 동부·서부 해안으로 빠르게 확산 수거 골치
 정부, 조기경보체계 구축·기술개발 등 대응 강화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이 연초부터 제주 연안으로 대거 몰려들며 한 달도 채 안돼 역대 최대 유입량을 경신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연안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5913t(지난 20일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도 환경면 용수 포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괭생이모자반이 유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괭생이모자반은 이후 제주 동부

와 서부 해안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괭생이모자반은 예년보다 일찍 제주 해안가를 습격했다. 통상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연안에 있는 암석에 붙어 살다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 떨어져 나와 3~6월 사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밀려오곤 했지만, 올해에는 두달 일찍 제주 해안가로 유입됐다.

해수부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서식하던 괭생이모자반이 지난해 11월부터 북서풍을 타고 북상하기 시작해 이

달 중순쯤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예년에 비해 유입 시기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밀려드는 양까지 어마어마 해 수산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해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는데, 연간 수거량은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 2020년 5186t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종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제주도와 해수부는 인력 272명과 항구를 청소하는 청항선 2척, 어항관리선 1척을 동원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지만 위낙 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연안

에서 수거한 괭생이모자반은 474t으로 유입량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괭생이모자반이 매년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남은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수거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휴대전화로도 괭생이모자반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게 2022년까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24년까지 기존 예측정보와 수거·처리 지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실시간 자료 전송체계를 갖춘 통합정보 플랫폼을 만든다. 이밖에 괭생이모자반을 식품·미용·사료·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수거 장비도 개발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함치게 비상하는 갈매기 23일 제주시 한림읍 용포리 해안에서 휴식중이던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날아 오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성평등지수 3년 연속 전국 상위권 여성가족부 2019년 기준 발표, 경제활동·복지·가족 1위

제주지역 성평등지수가 2017년 기준 중상위 지역에서 상위지역으로 상승한 이래 지속 상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에서 3년 연속 상위지

역을 유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해마다 발표하

고 있다. 지표는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 ▷복지 ▷보건 등 8개 분야로 구성된다.

제주지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은 전국 대비 경제활동, 복지, 가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성평등지수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분야별로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가족 분야가 62.7점(2018년)에서 68.5점(2019년)으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39.6점(2018년)에서 37.2점(2019년)으로 떨어져 전국 평균(39.7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성평등 수준 점수는 ▷보건 98.5점 ▷복지 93.8점 ▷교육·직업훈련 94.0점 ▷문화·정보(87.8점) ▷경제활동 79.8점 ▷안전 분야 71.1점 ▷가족분야 68.5점 ▷의사결정 37.2점이다. 이태요기자

서울~제주 하늘길 47.5% 줄었다

국토부, 연간 16만3855대 집계
 국내선 중 '가장 바쁜 항공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 중에서 가장 바쁜 항공로 구간은 '서울-제주' 구간으로 연간 16만3855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2019년 대비 50.0% 감소한 42만 1000대(하루 평균 1151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하늘길 중에서 가장 바쁜 항공로 구간은 '서울-제주' 구간(B576·Y711·Y722)으로 전체 대비 39%인 연간 16만3855대가 이용됐고 이는 전년 대비 47.5%(31만2389→16만3855대) 감소한 것이다.

월간 최대 교통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월에 7만2000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대 교통량은 1월 10일 2464대로 조사됐다. 하루 최저 교통량은 태풍(하이선)의 영향으로 9월 7일 393대를 기록했다.

'서울-제주'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비행고도는 국제선은 3만 8000피트(지상 11.5km), 국내선은

2만7000피트(지상 8.2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대비 66.4% 대폭 감소한 20만 대(하루 평균 546대)가 운항했고, 국내선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22만1000대(하루 평균 302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비행한 영공통과 교통량은 1만8000대(하루 평균 48대)로 전년 대비 69.3% 감소했다.

국제선 월간 교통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1~3월 대폭 감소 후 4월 이후 교통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국내선 월간 교통량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3·9·12월에는 교통량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된 7·8·10·11월에는 예년 수준 이상 교통량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이광 과장은 "올해에도 불확실성이 크나 백신 접종 등에 따라 항공교통량 조기 회복가능성도 있다"면서 "항공교통량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관제사 사전교육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마을 상수도·정수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제주도, 수돗물 안전성 확보

겨울철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분부는 도내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통해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 물 감시항목임에 따라 도는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시설 가운데 시설용량이 300t/일 이상인 정수장 16개소와 마을상수도 84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의 객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인 DK EcoV 환경미생물 연구소가 맡아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진행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분부는 2011년부터 매년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101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 도내 공급한 수돗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해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과 마을상수도에 대해 1~2월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명절선물 사전예약

이번 설날은 고맙고 소중한 분들을 위해 '한라산소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단체주문 환영 구입문의 | (주)한라산 064.751.6671 제주지역 판매처 | 도내 소매점, 농협, 대형마트 등



한라산물 순한소주
360ml 6병 / 17.2%



한라산 허벅솔
720ml / 35%



한라산21
360ml 6병 / 21%



한라산17
360ml 6병 / 17%

(주)한라산은 100% 순수향토자본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경고: 지나친음주는 뇌졸중, 기력손상이나 지체를 유발합니다.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